

곡성물, 개점 1년만에 누적 판매액 10억원 돌파

시기별 이벤트 지속구매 유도 성과
광주 동명동 팝업스토어로 홍보
120농가 참여 중간유통 생략 판매
유기농쌀 '백세미'·멜론 최다 구입

곡성군 온라인몰 '곡성물'이 문을 연지 1년만에 누적 판매액이 10억원을 돌파했다. 시기별 맞춤형 이벤트 진행과 광주 동명동 팝업스토어 오픈 등 대도시 홍보 주력 등의 결과물로 보여진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쇼핑몰 오픈 이후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홍보 마케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1년만에 누적 판매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이같은 성과는 '4월 구매왕을 찾습니

다', '곡성세계장미축제 기념전', '곡성멜론 특별 할인전', '추석맞이 할인전' 등 시기별 맞춤형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 4월 광주시 동명동 팝업스토어, 6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참여해 대도시권 소비자들에게 '곡성물'을 알린 것도 주효했다.

지난 6월 착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들이 곡성심청산품권으로 결제 가능하게 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개선한 점도 한몫했다.

'곡성물'은 지역 내 120여 농가와 업체가 입점해 쌀과 한우, 토란 가공식품 등



500여 종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중간 유통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가장 판매가 많은 상품은 곡성 대표 농산물인 누룽지 향이 나는 유기농쌀 백세

미와 곡성 멜론, 뒤를 이어 홍로사과, 자포니카 민물장어, 숯불유과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곡성물'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8품목씩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수요특가' 행사와 '전상품 무료배송'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오는 23일부터는 개점 1주년, 10억원 달성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입점 업체와 곡성물을 사랑해주시는 소비자들의 도움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매출 10억원을 돌파하게 됐다"며 "곡성물이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함평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함평읍·신광면·대동면

함평군이 28일까지 주민을 대표해 자치활동을 추진할 함평읍, 신광면, 대동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여러 속의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주민 대표기구이다.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모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읍·면별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위원 선정 후 주민자치 기본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누리집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상의 군수는 "군 정책이 주민의 목소리로 운영되는 함평형 주민자치회를 확대 실시하게 돼 너무나 자랑스롭다"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갖고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2022년 함평읍과 신광면에서 군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했으며 나머지 7개 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함평형 주민자치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화순군, 소상공인 대상

화순군은 20일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2023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서 2023년 화순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인 가맹점이다.

지원 금액은 2023년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수수료(0.5%)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검토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12월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379-3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화순군, 특별징수반 편성

화순군은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 2개반을 편성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요금 체납 수용가는 2420건이고 체납액은 약 2억 4534만원이며 이 중 2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1억 7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2.3%에 해당한다.

군은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고질 체납으로 변질해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 자진 납부 독려를 지속했으며 방문 독려 등 징수활동 선행 이후에도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수(단수)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박종욱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고서 발송 등 사전에 체납 요금을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며 미납에 따른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곡성군 혁신 우수사례, 군민이 직접 선정한다

곡성군이 군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혁신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23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군정 혁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수 혁신 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진행되며 설문조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17건의 혁신사례 중 자체 심사를 통해 1차 선정된 11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설문 대상으로는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건축물 준공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자동처리', '청소년 전용 학습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곡성 청년 푸드 창업 프로젝트 사업' 등이 해당된다.

설문은 누구나 군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우수사례는 11월 중 개최되는 발표심사 이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곡성=김대영 기자



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가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비만 예방 프로그램

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장성군 센터)와 장성군 보건소가 지난 7~9월 어린이 8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건강 지킴이 메타키즈 원정대'를 운영했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메타키즈 원정대'는 보건산업진흥원의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로, 소아 청소년의 비만 관리 및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군은 먼저 스마트 밴드를 활용해 △신체 활동 △수면 패턴 △식사 전·후 사진 기록을 확인하고 건강한 생활·식습관을 갖도록 유도했다. 가상 현실인 '메타버스'를 통해선 수면, 비만, 성장 관련 인지 교육과 '스마트 코치와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 실천 미션'을 수행했다.

'메타키즈 원정대' 참여 유도를 위해 마련된 1박2일 영양캠프에서는 △식품 구성 자전거 영양교육 △알록달록 송편

만들기 △신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곽영호장성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사는 "이번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비만 예방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장성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담양군, 가을철 발열 질환 감염 주의 당부

췌장기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담양군은췌장기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 가을철 발열 질환의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털진드기 유행에 의해 매개되는 췌장기무시증은 유행이 주로 번식하는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약 90%)하며, 잠복기는 1~3주로, 발열과 오한, 두통이 초기 증상이고, 기침, 구토, 근육통, 복통이 동반된다.

효과적인 예방백신은 없으며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옷을 입는 게 좋다.



신증후군출혈열 또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 질환이다. 잠복기는 5일~6주 정도로, 무증상부터 발열, 출혈, 신부전 등과 오한,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농부, 작업장 인부 등 위험 요인과 환경을 고려해 예

방접종을 권고한다.

렙토스피라증은 최근 관내 환자가 발생돼 더욱 주의를 요구한다. 감염된 쥐, 소, 돼지 등 동물 소변으로 오염된 물이나 진흙에서 활동 중 피부 상처를 통해 감염된다.

두통과 근육통, 오한을 동반한 발열이 초기 증상이다. 대부분 경증으로 지나가지만, 5~10% 정도는 황달과 신부전, 저혈압, 출혈 등을 일으키는 중증으로 진행해 사망할 수도 있다. 대증 치료와 항생제를 신속히 투여해야 한다.

담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구토, 설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